

거리,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웨덴 옘살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시, 호주 브리즈번시, 베트남 빈중성,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등 11개국 14개 도시와 자매결연하고 있다.

## 의회활동

### 원 구성

〈의 장〉 김경훈

〈부의장〉 조원희, 김경시

〈정당별 의원 현황〉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의안 처리** 정례회 2회(제1차 21일, 제2차 40일), 임시회 4회(59일) 등 총 6회 120일간의 회기 운영을 통해 조례안 242건, 예산 및 결산 14건, 동의안 32건, 결의안 10건, 규칙안 4건, 건의안 39건, 의견청취 8건, 기타(보고) 100건 등 모두 44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로 총 49개 부서·기관을 감사해 시정요구 91건, 촉구 165건, 건의 177건, 검토 93건 등 총 526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예산 심의** 본예산 1회, 추경 3회 등 총 4차례 심의했으며, 2018년도 대전광역시 본예산 4조3천128억원, 교육비특별회계 1조9천32억원을 확정하는 등 총 6조2천160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9명), 행정자치위원회(5명), 복지환경위원회(5명), 산업건설위원회(6명), 교육위원회(5명)가 있다.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8명),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8명), 윤리특별위원회(8명),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8명), 청년발전특별위원회(7인),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8인), 4차산업혁명특별지원특별위원회(7인), 인구증가방안마련특별위원회(6인)가 있다.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정 구현**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민제보를 접수해 이 중 27건을 처리했고, 진정 및 인터넷 민원을 통해 접수된 시민 불편과 고충 114건을 해결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했다.

의정활동을 담은 인터넷 방송, 본회의장 개방(1천803명 방청) 및 의정홍보관 운영(5천170명 견학)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생활의정 실천** 원도심활성화 연구회와 안전도시 연구회가 있다. 상임위 소관업무 중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책을 주제로 68회의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각종 사업장과 다양한 생활현장을 방문해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는 '생활 의정'을 실천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대전광역시 문자해독교육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등 177건의 안건을 의원발의했다.

**시민·소외계층 배려** 성락사회복지관 등 14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거동 불편자 돌보기, 위문품 전달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 울산광역시

市花 : 장미 市鳥 : 백로

市木 : 대나무 캐릭터 : 해울이

시청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시장 : 김기현(金起炫)



## 개관

**연혁** 울산은 삼한시대 진한(辰韓)에 속했다. 굴아화촌(屈阿火村)이라는 읍락이 현 중구 다운동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후에 신라 파사왕이 이곳을 취해 굴아화현(屈阿火縣)을 두고, 남쪽에는 생서랑군(生西良郡), 동쪽에는 동진현(東津縣), 언양지방에는 거지화현(居知火縣)을 두었다.

신라시대를 거치며 울산지방에는 하곡현과 동진현이, 남쪽에는 동안군(東安郡)이, 서남쪽에는 우풍현(虞風縣)이 자리잡았다. 고려 태조 때 하곡·동진·우풍 3현을 합해 흥례부(흥려부)로 승격됐고 성종 14년(995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전국을 449현으로 분할할 때 공화현으로 개칭하고 별호를 학성이라 했다.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울주가 울산으로 개칭되면서 최초로 '울산'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선조 31년(1598년) 울산도호부로 승격됐고 고종 32년(1895년) 울산군으로 개칭됐다.

1914년 언양군이 울산군에 병합됐고, 태화강 이남의 삼산·달동·신정·옥동지역이 울산면으로, 하부면과 내상면이 하상면으로, 현남면과 현북면이 대현면으로 개칭됐다. 1931년 울산면이 울산읍으로, 1934년에는 동면이 방어진읍으로 승격됐다.

1962년 2월 1일 울산군 울산읍, 방어진읍, 대현면, 하상면 전 지역과 청량면 두왕리, 범서면 무거리·다운리, 농소면 송정리·화봉리가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공포됐다. 같은 해 6월 1일 울산시로 승격되면서 울산군이 울주군으로 개편됐다. 1973년 3월 12일 울주군 서생면이 동래군에, 울주군 두서면 소호리가 상북면에, 삼남면 구수리가 언양면에 편입됐다.

1985년 7월 15일 구청제 실시에 따라 중구·남구가 설치돼 2구, 1출장소, 40개 동이 됐다. 1988년 1월 1일 방어진출장소가 동구청으로 승격(3구, 40개 동)됐고, 1991년 1월 1일 울주군이 울산군으로 변경됐다. 1995년 1월 1일 울산시·군이 통합돼(4구, 14 사업소, 60읍·면·동) 광역시 승격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1996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1997년 7월 15일부터 4구, 1군 체제의 울산광역시가 출범했다. 1998년 3월 1일 동구 염포동이 북구에 편입됐다. 2001년 3월 1일 울주군 온양면과 범서면이 읍으로 승격돼 울산광역시 4구 1군, 4읍 8면, 46개 동의 행정구역 체계를 갖추었다.

2002년 8월 30일 남구 무거동 일부가 울주군 범서읍으로, 울주군 범서읍 일부가 남구 무거동으로 각각 편입됐다. 2007년 2월 26일 무거동이 삼호동으로, 무거2동이 무거동으로, 아

구분	면적(km <sup>2</sup> )	가구(세대)	인구(명)			법정동·리	행정읍·면·동	통·리	반
			계	남	여				
합계	1061.2	458,547	1,185,645	611,668	573,977	190	56	1,574	10,952
중구	37	95,386	240,858	122,492	118,366	18	13	307	2,030
남구	73.5	134,372	340,367	173,618	166,749	19	14	435	3,218
동구	36.1	66,888	173,096	91,190	81,906	8	9	228	1,465
북구	157.3	72,416	203,234	105,468	97,766	27	8	240	2,250
울주군	757.3	89,485	228,090	118,900	109,190	118	12	364	1,989

음1장생포동이 야음장생포동으로, 야음2동이 대현동으로, 야음3동이 수암동으로 행정동 명칭이 바뀌었다. 2009년 1월 1일 옥교동·성남동이 합쳐져 중앙동으로 변경됐으며, 전하3동이 전하2동에 편입됐다. 2014년 9월 1일 북정동을 폐지해 중앙동 관할로 편입하고, 법정동 성안동과 교동 일부(북부순환도로 북쪽) 지역을 행정동 성안동을 신설해 관할하게 하는 등 관할구역역을 조정했다.

**면적 · 인구 · 행정단위** 동쪽은 동해, 서쪽은 경상남도 밀양시와 경상북도 청도군, 남쪽은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경상남도 양산시, 북쪽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접해 있다. 면적은 1천60km<sup>2</sup>고 인구는 118만5천645명이다. 행정단위는 4구, 1군, 56개 읍·면·동으로 구성돼 있다.

## 재정

2018년 예산 규모는 총 3조4천269억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1천798억원(5.54%)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2조7천423억원(80.02%)이고 특별회계는 6천846억원(19.98%)이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지방세 1조4천388억원(52.47%), 세외수입 1천94억원(3.99%), 지방교부세 1천722억원(6.28%), 보조금 6천636억원(24.20%), 지방세 700억원(2.55%),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천883억원(10.51%)이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3천508억원(51.24%), 공기업특별회계 3천338억원(48.76%)으로 편성됐다.

## 중점 추진사업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도시 울산 구현** 57개 재난유형별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재난방송시스템을 만들었다. 21종의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수정하고 재난상황실·경보통제소 24시간 운영 및 상황정보 전파체제도 구축했다.

태풍 '차비'로 입은 피해복구를 마무리하고 자연재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원전안전·방재대책을 추진하고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착수했다.

**창조경제 기반 확충,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4차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 U포럼'을 구성했다. 3D프린팅산업 클러스터 조성, 울산산학융합지구 준공, 게놈기반 바이오메

디컬 산업 육성 등 신산업 추진전략을 차질없이 실행했다.

친환경 에너지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를 착공하고 친환경 전지융합실증화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국가산단 산학연협의체(MC) 등 7개 기관과 '1사청년 더 채용하기' MOU를 체결했다.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조선기자재 기업의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귀농·귀촌 교육과 예비 귀농인 팜투어를 실시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했다. 울산항 활성화와 해양생태 복원을 위한 폐기물 수거, 바다숲 조성사업,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어항 내진 보강도 추진했다.

**나눔으로 따뜻한 삶, 살기 좋은 건강도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복지서비스 허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했다.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보육료·가정양육수당도 지급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울산 전역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해 연구·수당·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환경도시 조성** '제19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와 '제8회 아시아조류박람회'를 개최했다.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을 추진했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도 확대했다.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 언양하수처리시설 3차 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에도 주력했다. 재활용 감량사업 및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의 RFD(무선 인식) 활용 사업을 추진했다. 물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천상정수장 정수지와 도·송수관로 복선화 설치를 완료했다.

**품격 있는 문화도시, 매력 있는 관광 울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활성화하고 지역에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나눔사업을 확대했다. '아르코공연예술연습센터@울산'을 개관하고 울산문화재단을 출범시키는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주력했다.

'2017 울산 방문의 해' 추진으로 관광객 721만 명이 울산을 방문했다. 대한민국 관광 100선 4개소 등재, 해오름동맹 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관광호텔 확충 등 관광도시로의 도약

2018년도 울산광역시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합 계	3,426,875	2,742,321	684,554	350,799	333,755
지방세	1,438,800	1,438,800	-	-	-
보통세	1,233,000	1,233,000	-	-	-
취득세	474,200	474,200	-	-	-
등록면허세	10,400	10,400	-	-	-
주민세	5,000	5,000	-	-	-
자동차세	151,900	151,900	-	-	-
담배소비세	72,800	72,800	-	-	-
지방소비세	184,800	1,848,000	-	-	-
지방소득세	333,900	333,900	-	-	-
목적세	199,300	199,300	-	-	-
지역자원시설세	58,200	58,200	-	-	-
지방교육세	141,100	141,100	-	-	-
지산연도 수입	6,500	6,500	-	-	-
세외수입	444,173	109,351	334,823	71,994	262,829
경상적 세외수입	287,164	54,779	232,385	2,738	229,647
임시적 세외수입	157,009	54,572	102,438	69,256	33,182
지방교부세	194,874	172,200	22,584	22,584	-
보 조 금	768,947	663,621	105,325	73,541	31,784
지방채	70,000	70,000	-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10,171	288,349	221,822	182,680	39,142

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썼다. 영남알프스 및 강동권 해양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신불산군립공원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도 추진했다.

스포츠 활성화 및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2실내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2017 울산세계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시민편의 중심의 미래 지향적 도시공간 조성**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 울산공항 에어부산 신규취항 및 대한항공 노선(울산~제주) 증편, 울산역 SRT 하루 운행 횟수 증편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토밸리로 전 구간 개통, 반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와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준공 등 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축했다. 옥동~농소 도로 개통, 성안C~서동 간 도로 준공으로 시가지 차량 흐름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도 확충했다. 동해안로 도로확장으로 강동권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진장물류단지 2단계 조성사업도 마무리했다.

대중교통이용 소외지역을 위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버스정보시스템도 확대·구축했다. 신북로터리 고속도로 진입부를 개선하고 국도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을 구축했다.

매력 있는 도시 공간 조성 및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 '2025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시행에 대비해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했다.

2018년도 울산광역시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산액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합 계	3,426,875	2,742,321	350,799	333,755
일반공공행정	532,499	532,499	-	-
입법 및 선거관리	3,533	3,533	-	-
지방행정·재정지원	465,357	465,357	-	-
일반행정	63,610	63,610	-	-
공공질서 및 안전	218,970	153,468	65,502	-
교육	307,919	307,919	-	-
고등교육	307,919	307,919	-	-
문화 및 관광	155,019	155,019	-	-
문화예술	62,205	62,205	-	-
관광	14,657	14,657	-	-
체육	62,238	62,238	-	-
문화재	15,919	15,919	-	-
환경보호	419,540	85,785	-	333,755
상하수도·수질	333,819	64	-	333,755
폐기물	27,438	27,438	-	-
대기	25,582	25,582	-	-
자연	4,102	4,102	-	-
환경보호일반	28,598	28,598	-	-
사회복지	892,266	804,879	87,387	-
기초생활보장	171,555	84,168	87,387	-
취약계층지원	158,445	158,445	-	-
보육·가족 및 여성	277,086	277,086	-	-
노인·청소년	240,588	240,588	-	-
노동	21,114	21,114	-	-
보훈	7,247	7,247	-	-
주택	16,230	16,230	-	-
보건	43,431	43,431	-	-
보건의료	40,692	40,692	-	-
식품의약품안전	2,739	2,739	-	-
농림해양수산	74,577	74,577	-	-
농업·농촌	27,767	27,767	-	-
임업·산촌	38,410	38,410	-	-
해양수산·어촌	8,400	8,400	-	-
산업·중소기업	145,097	142,097	3,000	-
산업금융지원	8,756	8,756	-	-
무역 및 투자유치	9,656	9,656	-	-
산업진흥·고도화	100,064	100,064	-	-
에너지 및 자원개발	5,165	2,165	3,000	-
산업·중소기업일반	21,457	21,457	-	-
수송 및 교통	213,988	177,119	36,869	-
도로	74,049	74,049	-	-
해운·항만	240	240	-	-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39,699	102,830	36,869	-
국도 및 지역개발	185,497	102,116	83,381	-
수자원	7,282	7,282	-	-
지역 및 도시	80,006	78,579	1,427	-
산업단지	98,209	16,255	81,954	-
예비비	21,945	21,945	-	-
기타	216,125	141,465	74,660	-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국가공모에 선정됐다.

**소통과 화합의 창조 시정 구현** 미래 울산 20년을 위한 슬로건 '울산비전 2040'을 선포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KBS 열린음향회, 청년울산 특별기록전, THE 아시아대학총장회의,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울산형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 안전 취약지역 및 지역관광 현황을 분석해 활용하는 등 과학행정을 실행했다. 국가산업단지 지하 매설 배관 현황을 DB로 구축하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4시간 보안관제로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했다.

## 경제

**조세** 2017년 지방세 징수현황은 총 1조9천839억원으로 취득세 4천798억원, 등록면허세 346억원, 주민세 757억원, 자동차세 1천966억원, 재산세 2천241억원, 담배소비세 881억원, 지방소비세 1천914억원, 지방소득세 5천10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04억원, 지방교육세 1천339억원, 지난 연도 수입 -12억원 등이다.

**공업** 시 전체면적 1천60km<sup>2</sup> 중 공업지역이 7만9천768m<sup>2</sup>다. 입주업체는 1천782개사며 생산액은 209조2천805억원, 고용인원은 17만2천855명이다.

**유통** 2017년 말 기준 백화점 3곳, 대형마트 10곳, 쇼핑센터 4곳, 복합쇼핑몰 2곳, 전문점 3곳, 농수산물도매시장 1곳, 농수산물유통센터 1곳, 울산축협육가공센터 1곳, 전통시장 55곳 등이 있다.

**주택** 2017년 12월 기준 총 45만7천26호로 단독주택 16만8천610호, 아파트 25만6천003호, 연립주택 7천575호, 다세대주택 2만4천838호다. 주택보급률은 107.3%다.

**건설업** 종합건설업 업체 수는 222개사, 등록 업종 수는 243개다. 건설기계사업자는 대여 103개소, 정비 58개소, 매매 24개소, 폐기 8개소로 총 193개소다.

**운수** 2017년 12월 말 기준 전체 차량등록 대수는 54만9천489대로 승용차 45만9천672대, 승합차 1만5천915대, 화물차 7만1천419대, 특수차 2천483대 등이다.

영업용 차량은 시내버스 862대(시내 741대, 지선 76대, 마을 45대), 일반택시 2천156대, 개인택시 3천618대, 화물 8천650대가 있다.

**수출입** 2017년 12월 말 기준 수출은 667억 달러로 2016년 대비 2.2% 증가했다. 지역 5대 주력품목인 석유제품,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자동차부품이 489억 달러로 수출액 중 73%를 차지했다. 수입은 303억 달러로 2016년 대비 9.3% 증가했다.

**농업** 2017년 말 기준 경지면적은 1만889ha로 논 5천926ha(54%), 밭 4천963ha(46%)다. 농가 수는 1만2천451호, 농업인구는 3만1천278명으로 호당 농업 인구는 2.5명, 경지면적은 0.87ha다.

**축산업** 2017년 12월 말 기준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1천629가구 3만242마리, 젖소 25가구 990마리, 돼지 28가구 3만4천757마리, 닭 1천96가구 48만8천844수를 사육하고 있다.

**임업** 2017년 말 기준 임야면적은 총 6만8천671ha로 국유림

이 6천243ha, 공유림 2천180ha, 사유림 6만248ha다. 임상별로 침엽수림 2만6천812ha, 활엽수림 2만251ha, 혼효림 1만6천664ha, 죽림 397ha, 무입목지가 4천547ha다.

**수산업** 2017년 12월 말 기준 해안선은 총 166.76km며 어항은 27개소다. 이 중 국가어항은 2개소, 지방어항은 4개소, 어촌 정주어항은 10개소, 마을공동어항은 11개소가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886가구에 2천299명이다. 어선은 834척에 3천944이다. 어업권은 마을어장 등을 포함 총 82건 1천315ha다. 수산물 생산량은 2017년 기준 연간 9천581t에 달하며 수산물 총생산 금액은 551억1천500만원이다.

## 사회

**사회복지** 2017년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1만8천821명에게 548억원을, 초·중·고등학생 3천86명에게는 수업료 및 입학금 등 1억원을 지원했다.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8천997명을 발굴해 28억원을, 1만8천명에게 의료급여 935억원을,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477명에게 41억원을 지원했다.

65세 이상 노인 7만3천433명에게 기초연금 1천592억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1만3천270명에게는 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자녀 학비 명목으로 169억원을 지원했다. 12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콜택시, 활동보조서비스 등에 228억을 투입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 확충 등에 360억원,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을 위해 11개 단체에 2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보육·아동** 관내 어린이집 881개소에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238억원을 지원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3만5천88명을 대상으로 1천528억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2만1천900명을 대상으로 453억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6월에, 위기가동 보호를 위해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5월에 각각 개소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둘째자녀 출산지원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했다.

**여성·가족**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사회교육기관을 운영해 4만7천799명을 교육했다.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상담 사업에 80억원을 지원했다.

**소방** 2017년 울산시 화재는 총 1천553건으로 41명(사망 2, 부상 39)의 인명 피해와 3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구조 활동으로 1만6천849건 출동해 1천780명을 구조했다. 사고 종류별로는 교통 369명, 화재 35명, 수난 71명, 산악 133명, 기계 20명, 추락 55명, 기타 1천97명이다. 구급활동으로 4만3천787건 출동해 3만173명을 이송했다. 사고 종류별로는 급·만성질환 1만5천861명, 사고부상 7천362명, 교통사고 4천789명, 기타 2천161명이다.

**상·하수도** 2017년 말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98.3%며, 1인당 하루 급수량 301ℓ · 평균생산량 35만 · 정수시설 용량 55만이다. 하수도 보급률은 99%며 하루 하수처리량은 64만, 하수관로연장은 4천261km다.

**도로** 2017년 말 기준 총 6천976개 노선, 총 개설연장 3천

706km다. 고속도로 3개 노선 74km, 일반국도 5개 노선 192km, 국가지원지방도 1개 노선 17km, 광역시도 492개 노선 1천111km, 구·군도 6천242개 노선 1천870km, 농어촌도로 145개 노선 376km, 비법정도로 88개 노선 67km다.

도로율은 20.64%, 도로개설률 62.49%, 포장률 97.05%, 계획도로율은 33.02%이다.

**보 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8개, 병원 9개, 의원 589개, 한의원 287개, 치과의원 378개, 보건소 5개, 보건지소 8개, 보건진료소 11개 등 총 1천377개소다. 의약품 판매업소로는 약국 405개, 의약품도매상 47개, 약업사 3개, 한약업사 10개, 의료기기관매업 612개 등 총 1천77개소가 있다.

공중위생업소는 2017년 말 기준 숙박업 753개, 목욕장업 201개, 이·미용업 3천855개, 세탁업 509개, 위생관련업 427개 등 모두 5천754개소이고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등 10여개 업종 2만5천799개소가 있다.

## 문 화

**문화재단 출범** 2017년 1월 1일 1차 4팀 20명으로 (재)울산문화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울산의 문화예술교육,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단체 육성, 창작공간 운영 등 15개 사업에 92억원을 지원했다. 지역문화진흥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행사** 광역시 승격 20주년 및 '2017 울산 방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제26회 전국무용제를 개최했다. '울산전국합창경연대회 & 페스티벌', 울산방문의 해 기념 '3계절 테마 문화공연 및 IT대회' 등 전국 규모 행사를 진행하고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문화시설** 울산박물관을 비롯한 박물관 10곳, 문예회관 5곳, 문화원 5곳, 공연장 25곳, 야외공연장 11곳이 있으며 지역예술인을 위한 공연연습장인 아르크공연연습센터@울산이 2017년 11월 개관했다.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인 어린이테마파크를 2017년 4월 착공했고 2016년 7월 건립부지가 확정된 시립미술관의 토지보상을 마무리했다.

**문화재**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해 국보 2점, 보물 7점, 사적 6점, 천연기념물 4점, 국가기념물 2점, 등록문화재 6점, 시 유형문화재 34점, 시 무형문화재 5점, 시 기념물 46점, 시 민속문화재 1점, 시 문화재 자료 등 총 143점이 있다. 울산2경으로는 태화강대공원과 십리대숲, 대왕암공원, 가지산 사계, 신불산 역사평원, 간절곶 일출,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강동·주전 몽돌해변, 울산대공원, 울산대교,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외고산 송기마을, 대운산 내원암 계곡이 있다.

〈정당별 의석〉 자유한국당 21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의정 주요활동 및 성과** 제18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93회 2차 정례회까지 8차례 회기 운영을 끝으로 2017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적극적인 시정 견제 및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116일간의 회기 운영을 통해 원안 가결 196건(92%), 수정안 가결 12건(5.6%), 기타 5건(2.3%) 등 총 21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시정질문 12건, 서면질문 62건, 5분 자유발언 23건을 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울산시와 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고, 울산시 3조4천268억원, 교육청 1조6천562억원을 확정·의결했다.

**지역 현안에 한발 빠른 대응** '현대중공업 분사 사업장 및 연구기능의 지역 존치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총 14건의 결의안을 발의해 모두 원안채택 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 의정홍보관을 운영해 시민들이 도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모바일 생방송,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공개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개방해 1천589명의 시민과 학생이 방청 및 참관(견학)했으며, 청소년 모의의회 교실, 의회사랑 스피치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정활동 실천** 6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의정자문위원회(4개분야 17명)를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 제언을 했다.

도시품격발전연구회, 맞춤형복지전달체계 지원 연구회, 안동도시 울산연구회, 신성장동력연구회, 산업단지주변지역 발전 및 문화유산보존연구회, 지방의회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연구회 등 6개 의원 연구단체가 2017년 한 해 이슈 및 시정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市花** : 복숭아꽃    **市鳥** : 파랑새  
**市木** : 소나무    **캐릭터** : 새빛이, 새날이

**시청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본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99(조치원청사)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원수산로 36(별관)

**시장** : 이춘희(李春熙)

## 의회활동

### 원 구성

〈의 장〉 윤시철(자유한국당)  
 〈부의장〉 이성룡(자유한국당), 변식룡(자유한국당)

## 개 관

**연 혁** 세종특별자치시는 서울에 밀집돼 있는 행정기관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충청남도 연기와 공주 일부